핵폐기, 홍폐기(?), 악폐기

(잠언 24:1~34)

1.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2.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17.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19.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20.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핵폐기, 홍폐기(?), 악폐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핵폐기, 홍폐기(?), 악폐기'
요새 북한의 핵폐기가 언론의 주요 보도내용이 되는 가운데, 정당간의 다툼을 두고 홍폐기(?)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폐기'라는 말에 힌트를 얻어서 '악폐기'라는 말을 만들어보았습니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안에 있는 악입니다. 북한이 핵폐기를 해야 하듯이 우리는 악폐기를 해야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이 명시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두고 정치인들 간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뉴스를 보니 바른 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과 자유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간의 설전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 연일 비난을 쏟아내자 하태경 의원이 "북한은 핵을 폐기해야 하고, 남한은 홍준표 대표를 폐기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보다도 더욱 절박하게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민과 교회에서 폐기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함입니다. 핵을 폐기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완전한 비핵화가 언급됩니다. 이 과정을 CVID라고 합니다.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한(Verifiable),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해체(Dismantlement)를 의미합니다. 한편 공교롭게도 우리도 악함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는 이 CVID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민들에게 악함을 폐기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라고 하였고 17절에서는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악인과 원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원수의 관계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곧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원수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19절에서도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같은 의미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1절부터 다시 정리해보면 원수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말고 악인이 망한다고 해도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악인은 단순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악인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도 악인이 있고, 내 마음에 들고 내 편인 사람 중에도 악인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악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먼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이유를 알아야합니다. 내 마음에도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악이 있기에 형통하는 악인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들과 한 편이 될 때에 마음이 놓입니다. 따라서 1절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라는 말씀은 보다 근본적입니다. 단순히 부러워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악함을 폐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이 활성화되는 동안에 나타나는 일이 바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함이고 그들과 한편이 됨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악함이란 무엇일까요?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악이 무엇인지는 규정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함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에덴으로 돌아가 봅니다. 에덴은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서 에덴 외에는 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달에 가도 기쁨이 없고 은하계를 가도 기쁨은 없습니다. 태평양이든 히말라야의 고원이든 지구 위의 어느 곳에도 기쁨은 없습니다. 오직 에덴에만 기쁨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그 후손인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즉 기쁨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에덴 바깥으로 쫓겨났음에도 참 기쁨과 만족이 없이 살게 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울고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쁨이 없는 곳으로 쫓겨나 살면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에덴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란 듯이 돈으로 기뻐하려 하고, 건강이나 자녀의 형통 혹은 명예와 권력으로 기뻐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대한 믿음이 바로 악함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악함의 핵심이 됩니다. 기쁨이 없는 곳으로 정하신 곳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범죄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붙잡습니다. 이것만 가지만 기쁘고 만족하겠다고 여기는데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기쁘고 만족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본래 마음의 공백은 유일하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힘은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의 자리인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고 다른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대한 믿음으로 악함을 얻게 됩니다. 이 악함을 폐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한 핵폐기의 방식인 CVID를 사용해보기로 합니다.

먼저 악함을 폐기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완전함(Complete)입니다.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앎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마음은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니면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가치들이 대단하게 여겨질지라도 온전히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백억이라도 슈퍼맨 같은 건강이라도 하버드 대학을 나온 학벌이라도 완전한 무용지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기쁨과 만족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본질로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은 곧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기에 기뻐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기뻐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입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하나이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시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에 기쁨과 만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침 흘리는 세상가치들은 완전한 무용지물인 것을 알 때에 나의 악함의 폐기가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은 검증 가능한(Verifiable) 단계입니다.
내가 처한 삶의 환경에서 마음을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이 나오고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없을 때에는 그 해답은 환경이 아닌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감정들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엊그제 권사님 두 분이 강릉에 오셨습니다. 그 분들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도 문제가 있고 남편도 무능합니다. 집안형편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마주칠 때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음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걱정이 되고 두렵고 짜증이 나는지 보입니다. 보이면 바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세상의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 걱정근심 두려움 원망 시기 질투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검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세상을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검증하고 나면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고 세상적인 환경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닌 환경을 검증하면서 살아왔는데 속아서 살아온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검증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성격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심지어는 식성이 어떤가에 대해서조차 내 마음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내 마음을 검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채우는 일에 대해서 배우자가 무용지물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마음에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마음을 검증함으로써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은행의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원인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임을 깨닫고 그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기쁨과 만족이 사라졌을 때에 마음을 검증함으로써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의 가치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되니까 화도 나고 불평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용지물임을 알면서도 왜 자꾸

붙잡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바로 되돌릴 수 없음(Irreversible)의 단계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유전 죄의 습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유전 죄의 습성은 육체로 접하는 대상에 빨대를 꽂으려는 성향입니다. 육체로 접하는 대상을 선택해서 빨대를 꽂고 빨아들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22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받은 습성인데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가치가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위해 완전하게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거나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가치를 많이 얻기 위한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원천되시고 이 세상가치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면 마음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용지물인 것을 알면서도 붙잡는 이유는 되돌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가 만나는 이 세상가치들에 빨대를 꽂고 빨아들이려는 습성이 자동적으로 작용합니다. 돈이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 돈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보다 십자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완전한 무용지물이라는 지식과 무용지물에 묶여있는 내 마음을 검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을 알면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습성으로 되돌아가서, 육체가 만나는 이 세상가치들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근심걱정이 가득하게 됩니다.
완전한 비핵화처럼 완전한 악폐기는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붙잡히지 않습니다. 한 순간 십자가를 놓쳐서 세상에 붙잡혔더라도 마음을 검증하면 쉽게 십자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CVID 방식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를 하듯이 우리 마음속의 악함을 해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지속적인 십자가 생활화를 위하여 이 세상가치가 완전한 무용지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또 그 무용지물 중에 사로잡혀 있음을 수시로 검증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